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 예배 봉사와 점심친교 준비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 오늘 예배 후 친교실로 이동해 점심 친교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초대되었으니 참석해주세요.

3. 세계 성만찬 주일 (10 월 5 일) 예배 안내

◇ 다음 주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이 날은 세계의 온 교회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한 분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 이 날은 미국 회중과 한국 회중이 교회 본당에서, 오전 11 시에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 연합 예배 후, 친교실에서 한국회중의 점심친교(팟럭) 및 추석 축하 시간을 갖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 새가족 환영회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친교 이후 친교국 모임이 있습니다

4. 아래의 내용과 일정을 참조하여 주세요.

◇ **Stewardship 캠페인:** 10 월 한달간, 스튜어드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은 2026 년도 교회 예산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교육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동참하여 주세요.

◇ **프로젝트 216:** 10 월 15 일(수) 오후 6 시, 세계 난민을 위한 식량 포장작업이 교회 멕케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5 시 30 분에 피자가 제공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친교실에 부착된 신청지에 사인업을 해주세요.

◇ **한국 회중 창립 47 주년 기념주일:** 10 월 19 일(주일)

◇ **한국방문:** 김동중 집사, 심슨 정숙 권사, 안병국 청년, 김은영 집사

10 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촛불점화	점심 친교
9/25	소민호	김신화	앤, 조정일	권환희
10/5	세계 성만찬 주일 연합예배			추석 팟럭
10/12	조정일	이해욱	박남세, 박재희	치킨
10/19	류주현	백하은	박남세, 박재희	팟럭
10/26	김현숙	김은영	박남세, 박재희	김유자



담임목사 | 안영수    교육목사 | 임현철

시무장로 | 최광희 양재선 김유자 심현태 백하은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Fort Wayne 300 W. Wayne St. Fort Wayne IN 46802

www.firstpresfortwayne.org

2025 년 9 월 28 일  
오전 11 시

인도 | 안영수 목사  
반주 | 백하은 장로

전 주 [The Prelude] 반 주 자

개회찬송 [Hymn] 찬송가 413 장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다 같 이

개회선언 [Call to Worship] 교독문 57 번 (시편 130 편) 인 도 자

인도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One: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O Lord;

다같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All: O lord, hear my voice.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my cry for mercy.

인도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One: If you, O lord, kept a record of sins.

다같이: 주여 누가 서리이까

All: O Lord, who could stand?

인도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One: But with you there is forgiveness;

다같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All: therefore you are feared.

인도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One: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다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All: and in his word I put my hope.

인도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One: My soul waits for the Lord more than watchmen wait for the morning.

다같이: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All: more than watchmen wait for the morning.

인도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One: O Israel, put your hope in Lord,

다같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All: for with the Lord is unfailing love and with him is full redemption.

(다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All): He himself will redeem Israel from all their sins.

사도신경 [Affirmation of Faith] \_\_\_\_\_ 다 같 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참회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저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이해하고 품기보다, 무관심과 편견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할 수 있는 순간에도 침묵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주님, 무뎠던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이제는 삶의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Merciful God, we confess our sins before You at this time.  
Throughout the past week, we failed to experience Your presence, using busyness as our excuse.  
Instead of understanding and embracing our neighbors,  
we treated them with indifference and prejudice.  
Even in moments when a single word could have brought comfort, we remained silent,  
and we turned away from opportunities to offer help.  
Lord, awaken our dull hearts so that we may follow Your will in every moment of our lives.  
We offer this prayer of confession in the name of Jesus. Amen.

용서의선언 [Assurance of Pardon] \_\_\_\_\_ 인 도 자

응답찬송 [Response Hymn] ————— 주님의 성령 (The Holy Spirit of The Lord) —————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The Holy Spirit of the LORD, Please come here now, Please come here now, Please come here now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평화의 인사 [Sharing Peace] \_\_\_\_\_ 다 같 이

종보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소민호 성도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_\_\_\_\_ 마태복음 20:1-16, 7:15 \_\_\_\_\_ 김신화 집사

설교 [The Sermon] \_\_\_\_\_ “바로 그 주인공” \_\_\_\_\_ 안영수 목사

찬양과 봉헌 [Offering and Offertory] \_\_\_\_\_ 봉헌위원: 앤 권사, 조정일 집사  
찬송가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Gather here within This Place)

봉헌 기도 [Prayer of Dedication] \_\_\_\_\_ 인 도 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_\_\_\_\_ 안영수 목사

축도 및 폐회 [Benediction and Postlude] \_\_\_\_\_ 안영수 목사

찬송가 171 장 하나님의 독생자 (God sent His Son)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Mathew 20:1-16, 7:15)**

(마태복음 20) 1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2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3 그리고서 아홉 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4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5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6 오후 다섯 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라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9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1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12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 13 그러나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16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7)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Mathew 20) "1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laborers for his vineyard. 2 After agreeing with the laborers for the usual daily wage, he sent them into his vineyard. 3 When he went out about nine o'clock, he saw others standing idle in the marketplace; 4 and he said to them, 'You also go into the vineyard, and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So they went. 5 When he went out again about noon and about three o'clock, he did the same. 6 And about five o'clock he went out and found others standing around;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standing here idle all day?' 7 They said to him, 'Because no one has hired us.' He said to them, 'You also go into the vineyard.' 8 When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manager, 'Call the laborers and give them their pay, beginning with the last and then going to the first.' 9 When those hired about five o'clock came, each of them received the usual daily wage. 10 Now when the first came, they thought they would receive more; but each of them also received the usual daily wage. 11 And when they received it, they grumbled against the landowner, 12 saying, 'These last worked only one hour,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day and the scorching heat.' 13 But he replied to one of them, 'Friend, I am doing you no wrong; did you not agree with me for the usual daily wage? 14 Take what belongs to you and go; I choose to give to this last the same as I give to you. 15 Am I not allowed to do what I choose with what belongs to me? Or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16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Mathew 7) 15 Beware of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